

이슈 파헤치



만취해 전동킴보도로 사람 친 대학생...1심 벌금 500만원, 왜?

法 “전동킴보도는 ‘차’에 해당...사회적으로 법 인식 부족한 점 고려”

만취상태로 전동킴보도를 몰다가 사람을 친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동킴보도는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5길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킴보도를 문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씨는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제2

운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이수역 13번 출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A씨(75)를 들이받아 팔꿈치 및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운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며 “약식 명령

이 발령된 행량이 법정 최저형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전동킴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킴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이 이에 해당된다.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서 원전 사고전 1775배 방사선”

그린피스 “조사 2시간 만에...J빌리지 안전 보장 못해”

“수년간 제염작업 장소임에도...철저한 실패 보여줘”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에서 방사선 고선량 지점이 발견됐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비해 최대 1775배의 방사능 수치다.

그린피스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쿄 올림픽 성화 출발지로 지정된 J 빌리지에서 핫스팟(방사선 고선량 지점)을 발견했다고 밝혔

다. J 빌리지는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20km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일본 현지 유소년 축구팀과 해외 축구 선수단이 훈련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 그룹이 지난 10월 J빌리지 훈련시설 주변 지역을 특수 측정 장비로

조사한 결과 핫스팟이 발견됐다. 핫스팟은 주로 전나무 조경에 있었다.

특히 경기장 부근 주차장에서는 최대치인 71μSv/h(마이크로시버트) 수치가 확인됐다. 이 수치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보다 1775배에 가까운 값이

라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이곳은 일본 정부가 수년간 제염작업을 했던 곳으로도 알려졌다.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그 효과를 강조해온 것을 보여준다”며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 수준이 한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은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이동한다. 핫스팟을 제외한 J빌리지의 방사선 준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



후쿠시마 나라하에 위치한 J빌리 내 경기장

지만 비나 바람의 영향으로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순천시, ‘표절 논란’ 플라워쇼 최우수상 고소하지 않기로

변호사 자문결과 ‘실익없다’ 판단...당사자 사과문도 고려



2015년 작품(왼쪽)을 표절에 상까지 받은 작품(오른쪽).

순천시가 ‘플라워쇼’에서 표절 논란을 일으킨 최우수상 수상 작품에 대해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 화훼장식 경진대회(Flower Show)에서 표절 논

란을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표절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고소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자문을 토대로 고소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이 공개 사과문을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게는 수상 취소와 대회 참가지원을 회수했다”며 “향후 대회 참가 배제 등의 행정조치도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린 ‘플라워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다른 참가자의 이의제기로 불거졌다.

이 작품은 지난 2015년 경기도 고양시 컨택스에서 열린 ‘코리아 컵 플라워디자인 경기대회’에 출품한 작품과 비슷하다.

당시 제출된 작품은 이번 대회 심사위원인 A씨의 작품이고 순천플라워쇼 최우수상 수상작가는 A씨의 제자로 확인됐다.

심사위원 A씨는 “이번 작품은 제자가 스승의 작품을 따라하며 경의를 표하는 오마주(hommage)의 예술적 표현으로 표절은 아니다” 해명한 바 있다.

김기춘, 두 번째 석방됐지만...세 번째 구치소행도 불가피

‘화이트 리스트’ 관련 구속기간 만료로 425일 만에 석방 ‘세월호 조작’ 2심, ‘블랙리스트’ 대법 결과 따라 재수감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4일 석방됐지만, 남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세 번째 구치소 수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께 수감 생활 425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삼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연루돼 2017년 1월 21일 구속기소 됐지만,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에 60억을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실장은 지난해 10월5일 1차로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가 이번엔 다시 석방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 항소심 등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만큼 세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혁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혁군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령센터 1577-1000 |